



[라이프]
CJ그룹
푸드·바이오
역량 '쑥쑥'
L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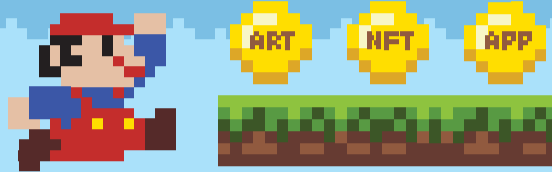


Life

[라이프]
마트 '가성비'
백화점 '초프리미엄'
설 선물 양극화
L2



미술품 수집하고, 앱으로 포인트 쌓고 뻘하지 않은 'FUN'한 투자로 레벨업!



인플레이션(물가상승)과 금리상승이 지속되면서 새해 재테크 전략에 이목이 집중된다. 2023년 계묘년(癸卯年)에 금융시장은 '자이낸스(Zinance)'를 주목하고 있다. 자이낸스란 Z세대와 금융(finance)을 합한 신조어다. Z세대가 주도하는 새로운 금융 트렌드를 뜻한다. 이들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며 어느 세대보다 재테크에 적극 뛰어 들어 유통시장뿐 아니라 금융시장의 '큰 손'으로 부상했다. 자이낸스를 이끄는 MZ세대의 경우 자산과 소득은 적지만 고수익을 얻기 위한 레버리지(대출)

투자에도 거부감이 적다. 주식시장과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장을 주도한 주역이기도 하다. 이들을 주요 고객으로 확보한 인터넷은행과 결제 관련 업체도 최근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 출범 2년 차를 맞은 토스뱅크는 1년 만에 가입자수 476만명을 유지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2017년 7월 출범한 이후 약 5년 만에 가입자 수가 2000만명이 넘었다. 이들을 따라 50대들도 가입을 시작하면서 올 들어 10월까지 신규 가입자는 50대 이상이 32%로 가장 많아졌다. 이처럼 금융권은 소비의 주축으로 자리매김한 MZ세대를 잡기 위해 이른바 자이낸스 마케팅에 적극적이다.

Z세대와 금융의 합성어 '자이낸스' 아트테크·NFT 등 재테크 수단 부상 새로운 트렌드에 금융권도 발맞춰

소액투자 가능한 미술품 조각투자 각광 NFT 열풍에 금융사도 시장 선점 나서 앱으로 포인트 쌓는 '생계형 재테크'도

◆ 금융권 아트테크 잡기 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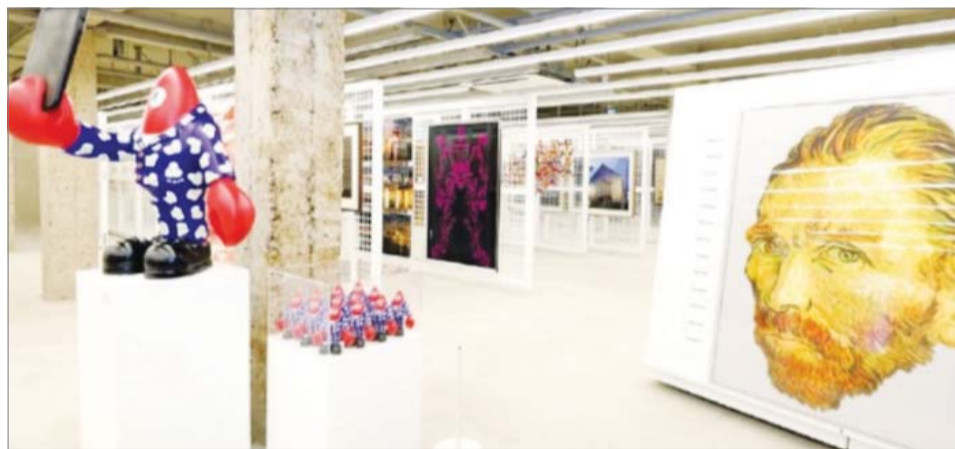
MZ세대의 대표적인 재테크 수단으로 ▲아트테크 ▲앱테크 ▲NFT(대체불가토큰)가 떠오르고 있다.

먼저 아트테크는 최근 각광받고 있는 조각투자 대상 중 하나다. 미술을 뜻하는 영단어 아트(art)와 테크가 합쳐진 합성어로 미술품 투자를 통해 자산을 불려 나가는 형태를 말한다. 과거에는 주로 부자들의 전유물로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고가의 미술품을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재테크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세금 부담이 적은 것 또한 매력적이다. 아트테크는 많은 세금 부담이 따르는 부동산 투자와 달리 예술작품 거래시 양도세만 지불하면 된다.

미술품 투자 열기는 지난 9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키아트-프리즈 서울' 아트페어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스위스 하우저 앤워스갤러리는 개막 한 시간 만에 작품 15점, 시가 100억원대에 이르는 작품을 모두 팔아 치웠다. 행사장은 미술품을 보고자 하는 MZ세대로 붐볐다.

금융사도 MZ세대 유치를 위해 미술품 조각투자 시장에 뛰어 들고 있다.

하나은행은 서울 을지로에 위치한 4층 짜리 알짜 건물에서 미술품 자산관리·보관·전시 전문으로 하는 'H.art1(하트윈)'을 열었다. 폐점포인 을지로기업센터



하나은행 '하트윈' 2층 상설전시장에 필립 콜버트의 '셀카를 찍는 랍스터'(2019·왼쪽)와 함명수의 '빈센트 반 고흐'(2007·오른쪽) 등 작품들이 전시돼 있다. /하나은행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머니쇼에서 NFT 뽑기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다. /뉴스시스

지점을 리모델링한 것이다. 이곳에서 고객들은 소장품을 비교하며 소통할 수 있으며 직원들에게 관련 투자 자문 및 소장 작품 평가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NH농협은행도 지난 3월, 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 기업인 테사와 조각투자 사업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회사는 조각투자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온라인 조각투자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의 공동 개발을 추진하고, 고객마케팅 분야 협력, 온라인 자본투자 기반의 새로운 상품개발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 NFT 입사지원서가 2000만원대?

작년에는 '루나-테라' 사태와 글로벌 가상자산거래소 'FTX' 파산, '위믹스' 논란 등 수많은 악재에도 유통가는 물론 금융시장까지 대체불가토큰(NFT)을 이용한 마케팅 서비스를 시작했다. 최근 시중은행 영업점 감소, 새로운 고객 경험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디지털 자산으로 NFT 상품이 주목받고 있다.

최근 고(故) 스티브 잡스의 입사 지원서가 NFT로 경매에 나와 2630만원에 팔렸다. 이외에도 훈민정음 해례본, 청자상감운학문 매병 등이 엄청난 가격에 판매됐다. 국내 금

용사가 NFT 시장 선점에 나선 이유다.

신한금융은 작년 4월 통합 금융 플랫폼인 신한플러스 내에 그룹사가 발행한 NFT 중 고객이 보유한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NFT갤러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농협금융은 작년 3월 글로벌 메타버스 플랫폼 로블록스에서 'NH비전타운' 체험관을 오픈하고 NFT 보물찾기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11월에는 핀테크 전문 기업 핑거와 함께 제작한 NFT 기반 메타버스 플랫폼 '독도버스' 오픈메타버전을 론칭했다.

◆ 고물가·고금리에 '앱테크' 주목

비대면 채널 위주로 금융생활을 하는 MZ세대들은 물가 상승에 따른 부담으로 앱을 활용한 '생계형 재테크'에도 집중하고 있다.

앱테크는 스마트폰 등으로 앱 광고나 이벤트, 만보기, 퀴즈 등에 참여해 포인트를 얻는 행위를 말한다. 포인트는 일정 수준 이상 쌓이면 환급이 가능하다.

금융권도 앱테크 고객을 잡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신한카드는 자사 통합결제 플랫폼인 '신한플레이(pLay)' 앱 내 'pLay오락실'을 운영 중이다. 매일 제공되는 네 가지 미니게임을 매일 각각 10회씩 플레이하면 2020명에게 랭킹별로 마이신한포인트를 제공한다.

하나은행은 '하나머니' 앱에서 '머니사다리'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머니사다리 서비스 내 광고 영상을 시청하고, 사다리게임에 참여하면 랜덤으로 1머니부터 최대 5만 머니까지 제공한다. 5만 머니는 5만원으로 현금화 가능하다. 머니사다리는 시간대별로 나뉘어 일 4회차 운영된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 15일 건강관리와 금융을 결합한 앱테크형 상품인 '온국민 건강적금'을 출시했다. 온국민 건강적금은 걸음 수에 따라 우대이율을 차등 적용하는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신태우호도 4강행...미쓰비시컵 한국인 사령탑 2팀 4강행
▲'이제는 AFC 소속' 호날두, 전용기 타고 사우디 입성 /사진 뉴스시스

▲'아바타: 물의 길' 글로벌 수익 14억 돌파
▲K리그 인천 오재석↔대전 권한진 '맛 트레이드' 성사



▲리디아 고, 세계랭킹 1위로 새해 출발...고진영 5위 /사진 뉴스시스
▲박태준 작가의 '더그림' 140억 투자 유치 "웹툰 생태계 확장"